

“팀 동료들과 원 없이 뛰면서 우승 꿈 향해 쏘겠다”



창단 이후 최고 성적 낸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에이스 강경민

만년꼴찌팀 광주도시공사가 올시즌 팀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냈다. 정규리그 4위, 포스트시즌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일궈냈다.

그 중심에 에이스 강경민(25)이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강경민은 24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광주도시공사에서 원 없이 뛰면서 모든 걸 누려보고 싶다”고 말했다. 정규리그 우승, 포스트 시즌 정상에 대한 욕심이다.

강경민은 165cm 단신이다. 슈터에게 작은 키는 약점이고 몸싸움에서도 불리한 조건. 하지만, 2019-2020시즌에 이어 2년 연속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와 득점왕을 동시에 휩쓸며 리그 최고의 선수가 됐다. 득점 2위 유소정(SK)의 149골과 50골 이상 차이가 났다. 정규리그에서 206골을 터뜨린 강경민은 종전 핸드볼 코리아리그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인 장소희(2013시즌 당시 SK)의 185골도 넘어섰다.

“언니(원선필)에게 수비가 집중한 탓에 기회가 많았을 뿐이에요. 평소 슈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슛이 정확하지 않고 실수도 많았죠. 개인 성적보다는 팀 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1일 2020-2021 SK핸드볼

한때 핸드볼 떠났다가 복귀
165cm 단신 약점 딛고 맹활약
2년 연속 정규리그 MVP·득점왕
코칭스태프·시체육회 등 지원 큰힘
개인 기량 오르고 팀플레이 살아나
큰 게임 치른 멤버들 새 시즌 기대

볼코리아 여자부 플레이오프 삼척시청과 경기에서 24-25, 1점차로 패배했다. 리그 득점 1위였던 강경민은 삼척시청의 집요한 수비에 막혀 5골 밖에 넣지 못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SK 슈가글라이더즈를 꺾고 팀을 플레이 오프까지 끌어올린 주역이었던 것에 아쉬움은 더 컸다. 그는 이 경기에서 11득점 8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부담이 많은 포스트 시즌 경기인데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체력 회복시간을 가질 수 없었어요. 다행히 언니·후배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강경민은 다음 시즌에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고 기대했다. 그 중심에는 ‘변화’가 있다. 경기에서 지고 있어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또 선수를 믿고 맡겨주는 코칭스태프와 광주시체육회, 광주핸드볼 협회의 지원 등도 큰 힘이라고 한다.

“팀플레이가 살아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선수 개인 기량이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큰 게임을 치른 이 멤버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선수를 믿어주는 코칭 스태프 덕분에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체육회, 광주핸드볼협회, 팬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인천비즈니스고를 졸업한 강경민은 2015년 광주도시공사에 입단(신인 2순위)했다. 실업 데뷔 첫 해인 2015-2016시즌 신인왕(득점 2위 118득점 33도움)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2016년 훈련 중 발목, 2017년엔 어깨 부상을 당했다. 2018년 11월에는 팀을 떠나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극절 끝에 핸드볼을 접고 수영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광주도시공사 지휘봉을 잡은 오세일 감독의 삼고초려 때문에 9개월 만에 다시 코트에 복귀했다.

올시즌 자유계약 선수신분이었던 강경민은 주저하지 않고 팀에 남았다. 타 팀의 집요한 스카우트 제의를 고사했음은 물론이다.

“오랫동안 운동을 쉬 탓에 몸을 만드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몸이 금세 올라와 경기하는



지난 19일 준플레이오프에서 경기 MVP를 받은 강경민. 오른쪽은 유석우 광주시핸드볼협회장.

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큰 부상없이 시즌을 마쳤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도시공사에 남은 가장 큰 이유는 이루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이지요. 선수들과 함께 반드시 큰 꿈을 이뤄보고 싶습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자농구 정규리그 MVP에 KB 박지수 득점상·리바운드상 등 사상 첫 ‘7관왕’

신인선수상은 하나원큐 강유림

여자프로농구 청주 KB의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23·사진)가 2년 만에 다시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박지수는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국민은행 Liiv M 2020-2021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MVP를 수상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이 발표한 기자단 투표 결과 박지수는 총투표수 108표 가운데 가장 많은 76표를 얻었다. 아산 우리은행의 김소니아가 24표로 뒤를 이었다.

이로써 박지수는 2년 만이자 개인 통산 두 번째로 MVP의 영예를 안았다.

박지수는 2018-2019시즌 KB의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이끌면서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에서 모두 역대 최연소이자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박지수는 정규리그 우승팀이 아

나 팀 소속으로 MVP가 된 역대 두 번째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

박지수에 앞선 사례는 2011-2012시즌 신정자(은퇴)뿐이었다.

무엇보다 박지수는 올 시즌 전 경기 더블더블이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트리플더블도 한 차례 달성했고, 한 경기 30점-20리바운드 이상도 이번 시즌에만 두 번 해냈다. 박지수는 이날 통계에 의한 시상식에서도 10개 부문 중 득점상, 2점 야투상, 블록상, 리바운드상, 윤덕주상(최고공헌도)까지 5개 부문을 휩쓸었다.

또한 박지현(우리은행), 신지현(하나원큐), 김소니, 김단비(신한은행)와 함께 베스트 5에도 포함돼 시상식을 독무대로 만들었다.

한 시즌 7관왕은 박지수가 최초다. 종전 기록은 역시 박지수가 갖고 있던 2018-2019시즌의 6관왕이었다.

박지수는 MVP 500만원에 윤덕주상 300만원,



나머지 4개 통계 부문과 베스트5 100만원씩을 더해 이날 상금으로만 1300만원을 받았다.

지도상은 두 시즌 연속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이 받았다. 위 감독은 우리은행 지휘봉을 잡고 2012-2013시즌부터 9년의 시즌을 치르면서 8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단독 후보라 찬반투표를 한 신인선수상은 만장일치로 부천 하나원큐 포워드 강유림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신진서, 커제도 잡았다 한국 농심배 바둑 우승

5연승 활약...우승컵 3년만에 되찾아

신진서 9단의 ‘끝내기 5연승’ 활약으로 한국이 3년 만에 농심배 우승컵을 탈환했다.

신진서는 25일 한국기원과 중국기원에서 온라인 대국으로 열린 제22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13국에서 커제 9단에게 185수 만에 흑 불 계승을 거두며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지었다.

신진서는 탕웨이싱 9단(중국), 이아마 유타 9단(일본), 양딩신 9단(중국)을 연달아 제압한 뒤, 일본 마지막 주자 이치리키 료 9단을 이어 중국 마지막 주자 커제까지 잡았다.

한국 바둑 랭킹 1위 신진서는 중국 랭킹 1위 커제와 상대 전적을 5승 10패로 좁혔다.

커제는 지난해 제21회 대회에서 박정환 9단을 꺾고 중국의 우승을 이끌었지만, 올해는 신진서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신진서는 세계대회 9연승을 질주 중이다.

신진서의 활약 덕분에 한국은 마지막 주자로 대기하던 박정환 9단을 내보내지 않고도 대회 정상에 올랐다.

5연승으로 한국의 농심배 우승을 확정지은 기사는 2005년 이창호 9단 이후 신진서가 처음이다. 이창호의 전설적인 ‘상하이 대첩’을 신진서가 ‘온라인 대첩’으로 계승했다.

농심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온라인으로 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농심배는 한중일 3국이 5명의 대표기사를 내세워 연승전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단체전이다.

한국의 농심배 우승은 이번이 13번째다.

한국은 2018년 19회 대회 우승 이후 2년 연속 중국에 내줬던 우승컵을 3년 만에 되찾았다. 중국은 8번, 일본은 1번 농심배에서 우승했다.

농심배 우승 상금은 5억원이다. 신진서는 연승 상금 3000만원을 챙겼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홍기표 9단(1승 1패), 강동윤 9단(1패), 신민준 9단(1승 1패), 신진서(5승), 박정환(미출장) 순으로 라인업을 짰다.

중국은 판탕위 9단(1패), 구쯔하오 9단(3승 1패), 탕웨이싱(1승 1패), 양딩신(1패), 커제(1패) 순으로 출전해 준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우즈 걷는데만 몇 달 걸릴 것”...재기 불투명

차량 전복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가 다시 걸을 수 있거나 지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UPI통신은 25일 “우즈가 다시 걷게 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이전 허리 수술 이력까지 있는 우즈가 다시 골프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예상했다.

우즈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했다.

두 다리를 심하게 다친 우즈는 병원에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여러 곳에 복합 골절상을 입었고 발목 역시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리톤의 정형외과 전문의 조지프 푸리타 박사는 UPI통신과 인터뷰에서 “정말 회복 속도가 빨라도 6개월은 소요될 것”이라며 “아무리 빨라도 2022년이나 다시 경기에 나올 수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해도 엄청난 일”이라고 예상했다.

푸리타 박사는 “그가 다시 걷게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리를 절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가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재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완벽히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척추와 목 부위를 전문적으로 보는 라헬 샤박사 역시 “상처가 아무는 데 몇 주 걸릴 것이고, 스스로 일어서는 데도 몇 개월이 예상된다”며 “골프를 다

시하는 상황을 말하기에는 좀 먼 이야기”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고처럼 다리뼈들이 피부에도 상처를 낸 경우 회복에 더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UPI통신은 “미국프로풋볼(NFL) 워싱턴의 쿼터백 알렉스 스미스가 2018년 이번 우즈와 비슷한 부상을 당했는데 당시 17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회복에 2년 넘게 걸렸다”며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다시 경기에 나올 수 있었다”고 비교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 정형외과 전문의 조지프 패터슨 박사는 AP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된 경우 조직 감염 위험성이 커진다”며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즈의 공식 소셜 미디어 계정은 “우즈가 현재 깨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 중”이라고 알렸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대회 9월 영광서 개최

전남도체육대회가 오는 9월 영광에서 열린다. 영광군은 애초 4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60회 전라남도체육대회를 오는 9월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남 22개 시·군 체육회 의견수렴과 지난 22일 전남도체육회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

제60회 전남체전은 주경기장인 영광스포티움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나눠 치러진다.

영광군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올 하반기 제60회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쌓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파서블
2관	소울
3관	키오스 워킹
4관	통과 제리
5관	미션 파서블
6관	키오스 워킹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7관 씨네키움	통과 제리, 워 위드 그랜파 라스트 레터
8관 씨네키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소울, 새해전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시즌1
임동민&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일시 : 2021. 03. 14.(일) 17: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